



연기금과 투신의 쌍끌이

What's new

-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주식펀드로 저가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신흥국의 비중을 줄이면서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ur view

- 순매도를 기록했던 투신은 8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 기금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연기금은 올해 들어 7조 원 가까이 국내주식을 샀습니다
- 당분간 투신과 연기금의 쌍끌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자금흐름

- 글로벌 리스크 요소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순매도 전환
- 주가 하락에 따라 기관과 개인 투자투자자는 저가 매수 확대

주식펀드로는 자금유입, 하지만 중소형주펀드 유입은 감소

- 저가매수 유입으로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 5월부터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던 중소형주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 감소

주요 기관투자자, 국내 주식 비중 확대

- 운용 자산이 증가하는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규모 증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배당형, 동일비중형 등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여 수익률 제고 노력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자금흐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발 리스크로 국내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초 이후 순매수를 주도했던 외국인은 7월 이후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나마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추가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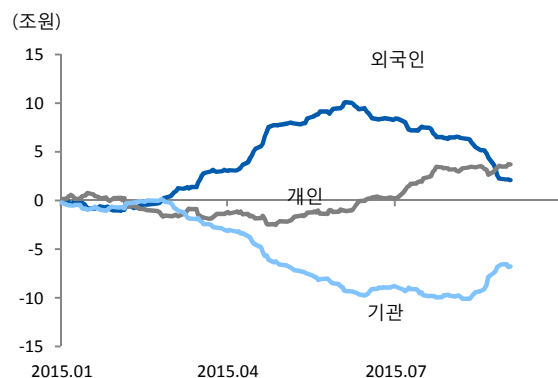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상반된 자금 흐름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주식 매수에 나서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순매도로 나서왔다. 이러한 흐름은 KOSPI 가 2100pt 에 다가서던 올 상반기에도 여김없이 나타났다.

7월 이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면서 외국인은 일단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신흥국주식펀드는 5주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순유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에서도 4주째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다. 주식펀드뿐만 아니라 신흥국 채권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채권펀드는 6월부터 자금 유출로 돌아선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채권펀드에서 주식펀드로 자금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초부터 미국 주식펀드는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자금 유출은 금리인상 리스크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변동성 증가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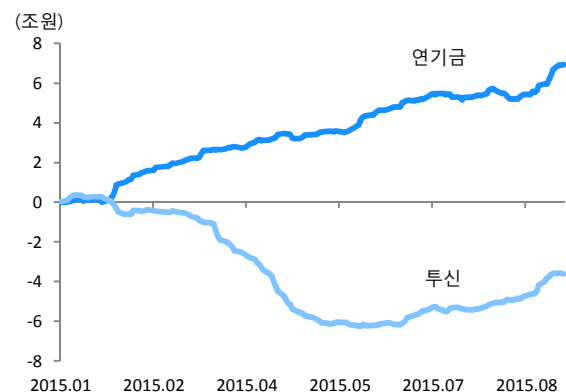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지난주 말부터 줄어드는 추세이다. 패닉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던 주식 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과 기관 순매수 증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기금과 투신 순매수 증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펀드로는 자금유입, 하지만 중소형주 유입은 감소

8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3조원을 팔 때, 기관은 3.2조원을 매수하였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1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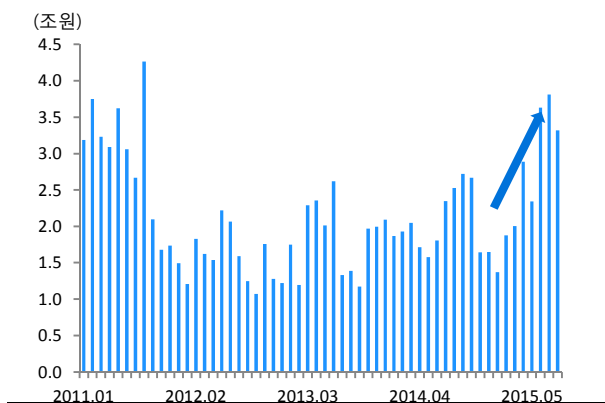
국내주식(ETF 제외)주식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중소형주펀드와 배당주펀드 같은 스타일 펀드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작년에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당주 펀드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고, 지난 2분기에는 중소형주펀드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다. 최근 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중소형주펀드 순유입 규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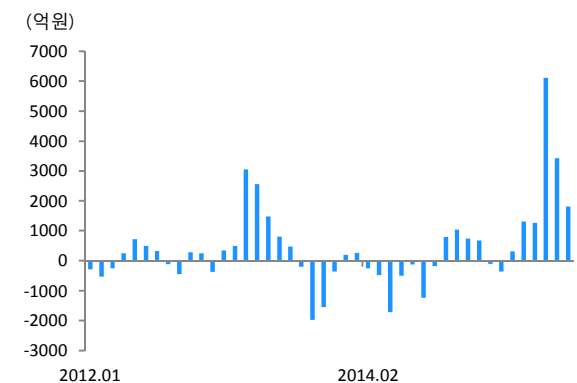
2011년 3조원을 넘어섰던 국내주식펀드의 월간 유입규모는 2014년 1.5~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상황과 최근의 주가 조정으로 국내주식펀드(ETF 제외)의 월간 유입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주식(ETF 제외)펀드의 월간 유입 규모는 3달 연속 3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인덱스펀드와 대형주 비중이 높은 액티브주식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국내주식(ETF 제외)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투신의 순매수를 확대시키고 있다. 투신 이외에 보험과 금융투자, 국가 등도 8월 들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기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주식(ETF 제외)펀드 월간 유입규모 증가



중소형주펀드 순유입 규모 감소



주요 기관투자자,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연초 이후 국내 기관은 국내 주식 투자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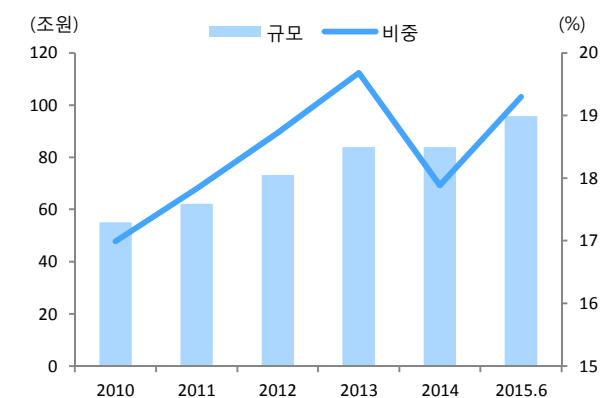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2014년말 17.9%였으나, 2015년 6월에는 19.3%까지 늘어났다. 같은 시기 국내주식 운용 규모도 83.9조원에서 95.8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의 2015년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은 20%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는 상반기에 25.4조원이 늘어났으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용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지난 7월 사학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자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이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추가 위탁운용 유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상품 운용기준의 개정규칙을 시행하였다. 사학연금의 국내주식은 성장형, SRI 형,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배당주펀드 등 신규 유형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말 1조 1726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7월 1조 206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공무원연금은 6월 배당성장형(3개사), 동일비중형(4개사), 사회책임형(2개사), 중소형주형(2개사)의 주식위탁운용사를 선정하였다. 배당성장형과 동일비중형은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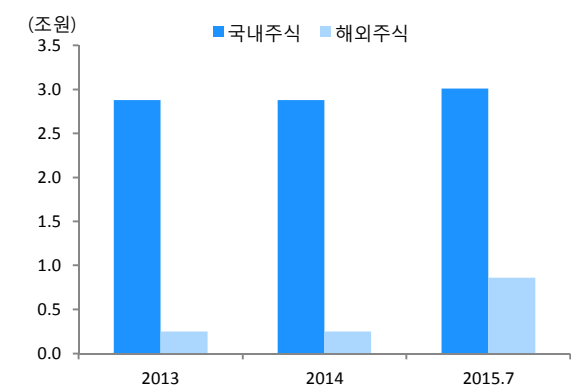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배당형, 동일비중형 등 신규 투자 유형을 늘리면서 국내주식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초 이후 국내주식 투자 규모 증가



자료: 국민연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사학연금, 해외주식 투자 크게 증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